

나주시, 여성농업인 건강 챙긴다...특수건강검진비 지원

농식품부 주관 공모사업 선정, 근골격계질환 등 10개 항목 만51~70세 400명 오는 5월부터 최대 20만원 검진비 지원

나주시가 고된 영농 작업으로 각종 질환이 염려되는 여성농업인의 건강 챙기기에 나선다. 나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한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비농업인 또는 남성농업인에 비

해 유병률과 의료비용이 높은 특성을 고려해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 관련 특수건강검진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51세부터 70세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여성농업인이다. 시는 5월부터 해당 연령대 여성농업인 400명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비를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검진은 '농약 중독', '근골격계 질환', '심혈관계', '폐활량'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으로 구성, 농작업 관련 질환 조기진단과 전문의 상담 서비스도 제공된다. 올해 일반건강검진 대상자인 홀수 연도 출생자는 일반건강검진과 특수건강검진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 짝수 연도에 태어난 여성농업인은 특수건강검진만 받으면 된다. 특수

건강검진 지원 신청은 오는 23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사업이 고된 농작업과 가사 노동으로 지쳐있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관리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최대한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안내,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송준표기자

담양 해동문화예술촌, 2023 '앙코르 해동' 시작

매달 마지막 주 토요일, 해동문화예술촌에서 문화의 장 열려

(제)담양군문화재단 해동문화예술촌이 2023년 '앙코르 해동' 공연을 시작했다. 2023년 '앙코르 해동' 상반기 프로그램은 대중음악, 댄스, 연극, 창극 등 지역의 특색을 집약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무료입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첫 번째 공연인 <홍순관의 쌀 한 톨과 노래 한줄>은 대중음악 공연으로 3월 25일 토요일 오후 4시 해동문화예술촌 마당에서 열리며 가수 홍순관, 해금 연주자 홍다솔, 시인이자 화가인 임의진이 함께 무대를 준비한다.

특히 가수이자 평화운동가인 홍순관은 부산대 미대 출신이지만 오랜날 정신대 할머니 관련 장기공연 <대지의 눈물>을 비롯해 재일동포 조선학교와 인연하여 노래를 나눔해왔다. 담양군문화재단 관계자는 "대중음악 분야를 좀 더 특색있고, 창작 행위에 기반한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분들을 섭외하여 지역민들과 방문객들이 사라져가는 한국 감성의 멜로디를 담양에서 즐겁게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고 이야기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현장 견학

구례군, 재난안전 중견리더과정 사무관 17명 대상



구례군은 지난 15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의 재난안전 중견리더과정 교육생인 사무관 17명이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현장을 견학하고 사업현황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7일 밝혔다.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에서는 재난안전교육

의 취지에 맞춰 전국 최대규모의 재해복구사업을 추진 중인 구례군을 방문했다. 교육생들은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현장사무실을 방문해 사업 현황과 사업추진을 위한 적극행정 사례 등을 청취한 후에 공사 중인 시시현 견학을 견학했다. 교육생들은 제방 보축 및 이설 중인 서시현 현장을 생생하게 보고 공사에 대한 질의 및 의견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며 수해 당시의 막대한 피해와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었다. 한 교육생은 "수해 당시 뉴스로 접했을 때 피해가 막심하여 복구 기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생각했으나, 직접 와서 보니 수해복구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고 있었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김순호 군수는 "재난안전 교육 중인 공무원들이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현장 견학을 통해 재난복구업무의 전문성을 향상하는 기회가 됐길 바라며, 수해복구 사업을 차질 없이 잘 마무리하겠다"라고 말했다. 구례=박진호기자

화순군, 농번기 대비 농업기계 안전교육 실시

교육생 37명 대상...농업용 굴착기 교육 등 3개 과정 실시

화순군이 지난 3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농업인 37명을 대상으로 관리자·경운기, 농업용굴착기, 트랙터 3개 과정 농업기계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업기계 조종에 필요한 이론과 현장 실습 교육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교육은 귀농인 등 농업기계를 접하지 않는 농업인들에게 농업기계 사용에 대

한 불안감 해소와 자신감을 부여하는 기회가 되었다. 올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기계 안전교육 7개 과정 15회, 215명을 대상으로 9월까지 연중 추진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연중 추진되는 안전교육을 통해 농기계 사고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곡성군, 농업기계 구입비 지원으로 농민 부담 덜어

599농가에 9억4백만원 지원

곡성군이 '2023년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으로 관내 599농가에게 농업기계 구입비 9억4백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접수 받았다. 2월에는 보조금 심의를 거쳐 본격적인 영농철이 시작되기 전 지원 농가를 정확히 대상자에게 통보했다.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은 갈수록 심화되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경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다. 또한

고가의 농업기계 구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상 농가의 영농 규모와 연령 등을 고려해 총 세 가지 사업으로 추진된다. 먼저 영농 규모 1.5ha 미만 농가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과 1.5ha 이상 농가를 대상으로 한 '다목적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은 농업기계 구입비로 1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만 19세부터 49세 이하의 청년농업인에게는 안정적인 농업인 정착을 위해 '청년농업인 소형농업기계 지원사업'을 통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대상자는 곡성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

고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농업기계 지원사업이 확정된 농가에서는 해당 농업기계를 상반기 내에 구입하고 군에서 정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입비의 50%는 농가가 부담해야 한다. 곡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기계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에게 꼭 필요하고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만큼 관심과 호응도가 높다. 지원이 확정된 농가에게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농업기계가 보급될 수 있도록 하고 기계 작동법 교육 등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유의하겠다"라고 말했다. 곡성=양해영기자

기업시민,
함께 미래가 도다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O&M

포스코케미칼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에너지

포스코티미널

포스코ICT

포스코A&C

포스코광판